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아주 버리고
하나님 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이뤄 주소서 아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사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7월 10(화) 기도 담당 : 전종우 집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22장	다 같 이
기 도	김준현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 39장 1절~4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탄식의 자리에서도 』	임종희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욥기 39장 1절 ~ 4절 >

-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 3 그것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새문안교회 2018. 07. 09(월)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하나님, 이른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교회로 향할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교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소와 같은 짐승조차도 내 맘대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도 때때로 누군가를 무시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결국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믿으면서도 마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나 형통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이 펼쳐져 갈 때도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성전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새성전 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일들을 예견하고 대비하여 교회 주변 이웃들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장리 추모관의 본격적인 사용을 위한 모든 마무리 공사가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되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간구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문안의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상황 조차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새문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문안의 다음세대가 여름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들의 두나미스 해외선교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2018년 여름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뤄가는 기반을 쌓으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